

일 주 문



한암 스님 63주기 추모다례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26일 월정사 작광전에서 한암스님 63주기 추모다례제를 개최했다.



무산복지재단 지역 무료의료봉사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념 스님은 4월 23일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정전 60주년 행사를 주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정전60주년 기념사업 감사패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4월 23일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정전 60주년 행사를 주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홍범사 간디 흉상 제막식
부산 홍범사 주지 심산 스님은 4월 25일 한·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부 산인도문화원과 함께 홍범사 내에 간디 흉상을 제막했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학장에 선일 스님



용인 화운사 주지 선일 스님이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새 학장에 임명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선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선일 스님은 1981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9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에서 선학을 전공했으며 운문사 승가대를 졸업했다. 인도 뿌나 대학에서 팔리어 및 산스크리트어 석·박사학위를, 스리랑카 페라메니아 대학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아자 화운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총동창회, 장학금 2,400만원 전달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송석환)는 4월 24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2014학년도 1학기 총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학생 18명에게 총 2,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송석환 총동창회장, 전영호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임원들과 김희욱 총장, 정창근 경영부총장, 박정국 학술부총장, 정각원장 법다 스님, 학생 18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송석환 총동창회장은 "건학정신을 계승하여 개인의 성취는 물론 학교 위상을 드높여줄 동량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학자·종립대간 소통의 장 만들 것”

권탄준 한국불교학회 신임회장



“불교학 결집의 장을 만들어 다양한 연구 경향을 공유하고, 신규 학자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런 자리를 종립 대학 간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도 지닐 것입니다.”

불교계 대표학회인 한국불교학회 제21대 학회장으로 권탄준 금강대 교수가 선출됐다. 한국불교학회는 4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21대 학회장으로 권탄준 금강대 불교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권탄준 신임 학회장은 동국대 불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불교학회 이사과 동국대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금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권 학회장은 먼저 선임 회장들의 노력으로 학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학회장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학회가 사실 이상적으로 잘 꾸려져 온 것만은 아니었지만 근자 분 위상을 찾았다”며 “이평래 학회장 당시 사단법인화로 재정적 안정이 되고 김성근, 김용표 학회장을 거치며 학회가 발전해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불교학을 대표하는 학회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권 학회장은 불교학회의 위상을 강화하

4월 18일 제21대 학회장으로 선출

금강대·원광대 등 구성원 폭 넓어져 불교학 결집대회 등 교류의 장 계획

기 위해 불교학결집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신임학회장 선출과 함께 금강대와 원광대 교수들이 이사에 대거 포함되는 등 학회 외연이 넓어진 만큼 상호 교류를 넓혀겠다는 방침이다.

권 학회장은 “지금까지는 각 종립대학에서 개별 학회를 중심으로 소통이 진행했다.

불교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종립대 불교학자들 간의 유대를 적극적으로 제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학회장은 “불교학 결집대회로 한 장소에서 여러 불교학 연구 현황을 공개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한국철학회, 역사학회 등에도 전국철학회나 역사학자대회 등을 열며 학문발전을 이끌고 있다. 불교학계에도 결집대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 권 학회장은 한국불교학회가 봄·가을에 진행되는 춘추계 학술대회와 겨울방학 중 여는 워크숍과 함께 젊은 신진 불교학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권 학회장은 또 “그동안 불교학 연구 경향을 보면 순수 불교학 중심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대회 등을 통해 교류가 활발해지면 인접학문과의 융합, 사회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보다 다양해 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신임법인 이사를 비롯해 제 21대 감사도 선출했다. 신임법인이사는 최홍석, 윤영해, 석길양 금강대 교수, 김도공 원광대 교수이며, 신임 감사는 윤원철 서울대 교수, 하춘생 동국대 교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BATI, 불교문에 신인상 3명 수상



불교문학작가교육원(BATI, buddhist author training institute, 원장 남지심) 회원 3명이 불교문학 계간지 <불교문에> 신인상을 수상했다.

신인상(소설 '복')·조재훈(동화 '웃샘')·마선숙(소설 '저녁의 시') 씨는 4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신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 정각원 ‘평화의 불’ 봉안



선목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동국대 정각원을 찾아 ‘평화의 불’ 행사를 열었다. 전국 사찰을 돌며 나눔과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108산사순례기도회원 2,500여 명은 4월 24~25일 동국대를 방문해 정각원을 참배하고 ‘평화의 불’을 봉안했다.

이 날 법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무사생환과 희생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선목 혜자 스님은 “건학108주년을 맞은 동국대 정각원에 평화의 불을 봉안하게 되어 기쁘다”며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들과 슬픔에 잠긴 모든 가족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스리랑카인 위한 마하위하라센터 건립에 관심”

담마프렌즈 대표 담마끼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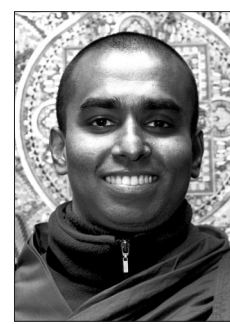
5월 4일 평택 팽성읍서 기공식

스리랑카인 커뮤니티인 담마프렌즈가 스리랑카 불교사원 마하위하라센터 건립한다. 담마프렌즈 대표 담마끼띠 스님(사진)은 5월 4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에서 기공식을 갖고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목표로 사원 건립에 들어간다. 담마끼띠 스님은 “마하위하라 센터가 완

성되면 위빠사나 수행처는 물론, 이주민들의 교류의 장, 상좌부 불교를 알리는 문화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마하위하라센터는 초기불교, 팔리어, 위빠사나 명상 등에 관심을 가진 불자들에게 수행 공간을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하위하라센터는 완공까지 총 20억원의 예산이 들 예정이다. 스님은 “마하위하라센터는 전통적인 상할라 건축 배치인 중앙 건물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되는 방



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국제선센터 서울 남부교도소 지원법회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가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국제선센터는 지난 4월 16일 구로구 천왕동에 소재한 서울 남부교도소를 찾아 개인 이후 첫 지원법회를 보냈다.

남부교도소 강당에서 봉행된 이번 첫 법회에는 재소자 250명과 포교사단 및 국제선센터 신도 10여명이 동참했다.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자비나눔행사 일환

으로 진행된 이번 교도소 지원법회는 4월 6일 군법당 1공수여단 일취사 자매결연식에 이은 것이다.

주지 탄웅 스님은 “지난 군법당 일취사에 이어 가까이 있는 재소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교정교화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금 회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일이 곧 부처님 일”이라며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인생에 있어서 선택과 책임의 중



요상’에 대해 법문했다.

국제선센터는 향후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지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무등산풍경소리 교보환경대상 수상



무등산풍경소리(지기 연광)는 4월 22일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6회 교보환경대상 ‘생명문화’ 대상을 수상했다. 교보환경대상은 매년 각 분야에서 시민환경의식 고취와 환경 친화적 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환경상이다. 연광 스님은 “환경음악회와 숲 탐방을 꾸준히 이어온 것이 존중받는 것 같아 행복하다”며 “무보수 자원봉사로 오늘을 지켜온 무등산풍경소리 가족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佛紀 2558年 甲午年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Buddha's birthday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봉진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비구니총무원장 덕산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대진 비구니총무국장 덕심

Table listing various Buddhist positions and names: 불국사(봉진), 지장사(광영), 금정사(덕심), 법성사(법룡), 문수사(성묵), 약샘사(대진), 용주사(용주), 대성사(지선), 당포사(종철), 성불사, 칠성암(사우), 운고사(운고), 동방사(법운), 불현사(대공), 용연사(취암), 여래암(경담), 보문선원(보문), 청호암(해인), 동방원(법운), 극락정사(석도), 쌍암사(덕산), 약불암(혜각), 구룡암(대공), 대왕정사(해월), 미정사(운선), 미륵정사(미정), 범굴사(무법), 칠성암(무설), 무심사(보명), 보우선원(성군), 개남사(도일), 보광정사(자공), 약불암(무여), 천자암(무우), 약수암(법륜), 향운사(해인), 공덕사(선혜), 백련암(문정), 화성암(성화), 쌍봉암(쌍묵), 내원암(해인), 대연사(일화)

불심정사(혜관) 052)275-5539, 010-4590-5539 천광정사(취운) 051)514-8766, 010-9706-1103 금강사(금강) 061)392-0999, 010-8604-1111

